

남도서 만나는 확장된 수묵의 세계



2025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가 95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8월30일부터 10월31일까지 목포, 진도, 해남 등 전남 일원에서 열리는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는 '문명의 이웃들(somewhere over the yellow sea)'을 주제로 수묵의 서사를 풀어낸다.

올해 네번째 전시를 여는 수묵비엔날레는 앞선 세 차례의 전시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확장된 수묵의 세계를 보여준다. 수묵의 정의부터 시작해 어떻게 확산됐는지, 전 세계 300개 비엔날레 중 사실상 거의 유일하다 볼 수 있는 국제수묵비엔날레로서의 정체성을 살펴볼 수 있다. 함께 하는 작가는 모두 처음 참여하는 작가들이며, 작고한 작가들을 제외하면 국내외 작가들의 비율을 맞췄다. '이 작품도 수묵인가?'라는 질문이 떠오를 수 있는 깜짝 놀랄만한 작품도 전시돼 보다 확장된 수묵의 세계를 펼쳐보일 예정이다.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D-95 '문명의 이웃들' 주제 서사 한눈에 향해 둘러싼 동아시아 해양권 조명 20개국 82명 해남·진도·목포 전시



윤재갑 감독

윤감독은 "광주비엔날레는 서구 미학을, 전남 수묵비엔날레는 동양적 사유를 확장한 것"이라며 "우리 시각에서 세계의 미학을 논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비엔날레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수묵비엔날레의 주제 '문명의 이웃들'은 황해를 둘러싼 동아시아 해양 문명권을 조명해 한국과 아시아, 세계를 잇는 문화플랫폼의 토대를 만든다는 기획의도가 담겼다. 전통적인 대륙 중심의 문명 서사를 넘어, 바다를 매개로 서로 교류하고 영향을 주고받은 다양한 지역 문명간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는 전시다. 수묵이 해양적 연결속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확산됐는지 역사적으로 조명하는 전시가 될 전망이다.

참여작가는 20개국 82명이다. 국내 49명(작고 17명, 생존 32명), 해외 33명으로 젊은 작가들의 참여도 눈에 띈다. 광주 출신인 윤준영 작가를 비롯해 95년생 문주혜 작가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일본의 디지털아트 그룹 팀랩 (TeamLab)과 이란 출신으로 독일에서 활동 중인 파라스트 포로우하르 작가는 수묵을 평면에서 3차원 공간으로 옮긴 예술을 보여줄 예정이다.

● 수묵예술의 국제적 확산

수묵비엔날레는 해남에서 시작해 진도와 목포로 이어진다. 전시장은 목포문화예술회관과 목포실내체육관, 진도남도전통미술관과 진도소전미술관, 해남고산운선도박물관과 해남방끝순례문화관이다.

해남은 뿌리의 재발견을 보여준다. 조선 후기 대표 화가인 공재 윤두서가 활동했던 지역인 해남은 수묵화의 조형성과 사유적 전통이 시작된 중요한 배경을 제공한다. 공재 윤두서의 '자화상'과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가 대표적인 작품이다. 역사적 가치가 높은 회화와 그 시대적 배경을 해석하는 시각 자료를 통해 관람객이 전통 수묵의 조형 언어와 미학적 특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전시를 만날 수 있다.

진도는 줄기의 생성 및 확장을 보여준다. 문자 예술과 수묵의 만남에서는 추가 김정희의 '세한도'와 석파 이하응의 '묵란도' 등이 전시된다. 문자의 조형성과 필획의 감각을 수묵의 시각 예술로 확장한 서예중심 전시다.

목포에서는 수묵의 세계화를 보여준다. 수묵의 현대적 해석과 실험을 수용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며, 전통 회화에서부터 미디어, 설치, 사운드 등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는 동시대 수묵의 확장 가능성을 탐색하는 전시가 이뤄진다. 대표적으로 팀랩의 몰입형 미디어 작업은 관람객의 움직임에 따라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환경을 조성해 전통 수묵이 표현해온 자연의 유동성과 비정태성을 시각화, '움직이는 수묵'을 제안한다.

김은영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수묵비엔날레는 윤재갑 감독님의 구상에 따라 이전보다 구체적인 수묵의 세계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미술계도 조명을 받을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진화 기자

객석과 하나된 마당창극 "재미지게 놀았다"

시립창극단 '열어볼 결심' 리뷰

광주시립창극단의 첫 마당창극 '열어볼 결심'이 지난 23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공개됐다.

마당창극은 1970년대 이후 형성된 공연의 한 유형으로 무대 출연진들이 관객들과 함께 소통하며 전통 창극과는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하는 무대. '열어볼 결심'은 판소리 다섯바탕 주인공 공, 춘향, 심정, 학규, 토씨, 끝동의 새로운 삶을 재치있게 표현하면서 그들의 내적 욕망, 그리고 각각의 캐릭터들의 자유분방함을 보여주는 한 마당으로 펼쳐졌다.

눈을 뜬 학규는 시니어 인생 강의 일타강사, 춘향은 연예기획사 대표가 됐다. 심정은 패션비즈니스 대표가 됐고 토씨는 정치인의 길로 들어섰다. 흥보의 막내아들 끝동은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한 상태. 이들이 흥보의 초대장을 받고 한자리에 모여면서 소동이 벌어진다.

본격적인 무대가 펼쳐지고, 신나는 비트가 울려 퍼지자 관객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흥겹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이때 끝동과 명월이 관객 사이에서 등장하며 집중도를 높였다.

춘향, 심정, 학규, 토씨, 끝동은 좋았던 시절을 잊고 서로를 의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다. 흥보의 초대장을 받은 만큼 흥보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무언가를 남겼으리라 기대했고 서로 차지하려 욕심을 냈다. 흥보의 법률대리인 제갈량이 등장해 흥보가 남긴 상자를 건네자 춘향, 심정, 학규, 토씨, 끝동은 흥보가 남긴 재산으로 팔자를 다시 한번 고쳐보리라는 욕심을 낸다. 서로 먼저 차지하는 것이 임자라는 생각, '너 죽고 나 살자'는 심보에 소동이 벌어진다.

소동 끝에 열게 된 상자 속 흥보의 선물은 박씨야 아닌 대화씨였고 모두들 실망한다. 풀이 죽은 끝동에게 명월이 다가가 밥을 먹으러 가자

고 한다. 돈이 없어도 된다는 명월의 말에 끝동은 깨닫는다. 모든 것은 때가 있는 때이고 진짜 흥보가 남긴 선물은 파도 파도 마르지 않는 사랑이었다고.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며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러 가고 무대엔 한 상이 펼쳐져 모두가 함께 음식을 나눈다. "오가는 것은 덕담이요 넘치나니 웃음이라 이 제라도 깨달으니 어화동등 놀아보세~"

80분간 펼쳐진 마당창극 '열어볼 결심'은 판소리 다섯바탕 주인공의 30년후 이야기라는 스토리도 참신했고 메시지도 분명했다. 음악과의 상등 불거리도 풍성해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덕분에 어려운 예술이 아난가 싶은 창극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는 시간도 됐다. 게다가 창극에 비보이러니, 제갈량이 등장할 때와 마지막 한상이 차려질 때 등장한 비보이의 무대는 신기하게도 이질감 없이 흥겨움을 선사했다. 각자도생의 현실에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그리움과 사랑을 되살리는 무대, 전통의 소리에 현대의 비트까지 어우러지면서 누구에게나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무대가 됐으리라 생각된다.

이번 마당창극 '열어볼 결심'이 열린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374석은 일찌감치 전석 매진됐다. 티켓을 구입하지 못한 이들의 원성도 자자했다는 후문이다. 한 번만 보기엔 너무 아까운 무대인데 다행히 올 연말 송년의 밤 행사에 앙코르 공연이, 그리고 내년 순회공연이 계획 중이러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누군가는 말한다. 마당창극을 보고 나니 정극 판소리는 어떻게 궁극해졌다고. 광주시립창극단의 '열어볼 결심'이 창극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 같다. 연말 공연이나 내년 순회공연이 열리면 꼭 관람을 권하고 싶다. 기존 창극팬과 새롭게 창극을 접하는 이들 모두 만족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글·사진=최진화 기자



광주시립창극단 마당창극 '열어볼 결심' 출연진이 공연후 관객들과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상무지구 FUNIS

광주 최대규모! 세상에 없던 완벽한 즐거움!

스크린골프와 볼링, Cafe & Lounge 등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365일 즐거움이 쏟아진다!

3F_SCREEN GOLF

품격높은 광주 최고 수준의 GOLFZON PARK 시스템스크린골프 12실과 부대시설

2F_SCREEN GOLF

품격높은 광주 최고 수준의 GOLFZON PARK 시스템스크린골프 11실과 부대시설

Fun it, us

1F_CAFE & LOUNGE

프라이빗하게 소규모 모임과 미팅을 즐길 수 있는 색다른 공간

B1F_BOWLING

고급스럽고 프라이빗한 24레인 규모의 대형 볼링장

FUNIS

062. 374. 8181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192(치평동) 구. 상무리초컨벤션쉐어링홀